

돌아온 호랑이 선생님의 ‘내 팀 만들기’

성남FC 김학범 감독 “ACL 망신 없다”

30명 규모 성남 선수단, 혹독한 겨울훈련
남준재·박태민·부예노 영입 등 팀 재구성
“시민구단의 한계에 맞서 최대한으로 노력”

‘호랑이 선생님’이 컴백했다. 일본 구마모토 전지훈련에 앞서 12일부터 전남 순천에서 동계 훈련을 진행 중인 성남FC 김학범(55) 감독 이야기다.

30명 규모의 성남 선수단은 아주 혹독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잠시 쉴 틈도 없다. 분 단위로 쪼개 오전·오후 체력훈련과 전술훈련을 병행한다. 최적화된 근력과 지구력을 만들기 위

해 스트레칭과 서킷 트레이닝으로 뻘뻘한 일과를 시작해 볼 터치 위주의 오후 훈련을 소화한다. 새벽 러닝, 늦은 밤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강행군의 연속이다.

이렇다보니 숙소와 훈련장을 오가는 구단 버스에서 잡담하는 선수를 찾을 수 없다. 틈날 때면 잠을 자뉘야 다음 일정을 무리 없이 맞이할 수 있다. 5일부터 일주일간 강릉에서 진행된 1차 훈련 때도 밤이 폭풍 빠지는 한겨울 백사장을 누비며 구슬땀을 흘린 이들이었다.

지난해 9월 K리그 챌린지(2부리그)로의 강등 위기에서 성남의 소방수로 나선 김 감독이 처음부터 제자들을 혹독하게 조련한 것은 아니다. 부임 초기에는 클래식(1부리그) 정규리그와 FA컵을 치르느라 별다른 준비를 할 수 없었다.

다음 경기 대비가 코칭스태프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러나 이번 겨울은 다르다. 오직 ‘내 팀 만들기’를 위해 마련된 시간이다. “조깅 수준”이라는 김 감독의 말과 달리, 지친 얼굴의 선수들은 “이제야 악명(?) 높은 ‘조련사’가 부임했다는 걸 실감한다”며 혀를 내둘렀다.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새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만큼 전력보강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국제무대에서) 그냥 망신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2005년 성남일화(성남FC 전신)에 입단해 7년간 활약한 중앙수비수 김태윤을 복귀시켰고,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측면 공격수 남준재와 왼쪽 수비수 박태민을 데려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용병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 브라질 상파울루주리그 파울리스타 소속으로 브라질 세리에A 득점왕에 오르기도 한 히카르도 부예노의 영입은 그 시작이다. 선수단 33명이 김 감독이 ‘판’을 흔들 만하다’고 생각하는 규모다. 김 감독은 “지금 부족이라는 시민구단의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천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성남FC는 일본 구마모토 전지훈련에 앞서 전남 순천에서 엄밀한 훈련을 진행한다.
순천 | 남정현 기자



SK 박승리·김선형·최부경 고른 득점…kt전 8연승

(13점)

(11점)

(10점)



kt 외곽 완벽 봉쇄…3점슛 허용 4개뿐
30승 선착…모비스에 승률 뒤져진 2위

SK가 상대 외곽을 철저히 봉쇄하며 kt전 8연승을 달렸다.

SK는 26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4~2015 KCC 프로농구’ kt와의 홈경기에서 애런 헤인즈, 코트니 심스(이상 15점), 박승리(13점), 김선형(11점), 최부경(10점) 등 주전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75-65로 이겼다. 10개 구단 중 처음으로 올 시즌 30승(10패·승률 0.750) 고지에 오른 SK는 선두 모비스(29승9패·0.763)에 승차 없이 승률에서 뒤져 2위를 기록했다. 2연패에 빠진 kt는 단독 6위에서 전자랜드(이상 19승 21패)와 함께 공동 6위가 됐다.

SK는 비록 주장 박상오(196cm)가 탈장 수술로 빠져있지만, 이날 복귀한 김민수를 비롯해 최부경(이상 200cm), 헤인즈(199.5cm), 박승리(198cm) 등 장신 포워드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 반면 높이에 약점이 있는 kt는 장거리포의 존도가 높다. 특히 전태풍의 부상과 이재도의 부진이 겹치면서 조성민에게 공격이 집중됐다. 경기 전 SK 문경은 감독은 “kt의 외곽을 잡겠다”고 공언했다. kt는 이날 경기 전까지 경기당 6.2개의 3점슛을 링에 꽂으며 이 부문 공동 4위에 올라있었다.

kt는 결국 장기인 외곽슛을 살리지 못했다. 3쿼터까지 11개의 3점슛을 던졌지만, 성공한 것은 2개뿐이었다. 4쿼터에 2개가 터졌지만, 뒤늦은 감이 있었다. SK는 1쿼터를 16-13으로 앞선 뒤 2쿼터 이후에도 승기를 빼앗기지 않았다. 이로써 SK는 2014년 1월 11일 이후 kt전 8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잠실 |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SK 김선형(왼쪽)이 26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kt와의 홈경기 도중 이재도를 제치며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잠실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rket007

끊임없는 홍아란의 진화 ‘KB 함박웃음’

데뷔 첫 두자릿수 평균득점…팀 6연승 주역



‘청주 아이유’ 홍아란(22·KB스타즈·사진)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

2011년 KB스타즈에 입단한 홍아란은 올 시즌 생애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23경기에 출전해 평균 10.2점·2.6리바운드·2.9어시스트·1.2스틸의 전방위 활약을 펼치며 팀에 없어서 안 될 선수로 성장했다. 데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 중이다. 경기당 출전시간도 늘었다. 지난 시즌은 30분47초, 올 시즌은 35분15초다.

25일 용인체육관에서 벌어진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5라운드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선 3점슛 5개를 포함해 19점·4리바운드·3어시스트로 팀의 6연승에 앞장섰다. 이날 승리로 KB스타즈(14승9패)는 4위 삼성(10승 14패)과의 간격을 4.5경기차로 벌리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홍아란은 경기를 치를수록 발전하고 있다. 25일 삼성전 2쿼터 막바지에는 순간적으로 스



템을 뒤로 빼 상대 수비를 뚫어뜨린 뒤 3점슛을 성공시키는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팀 선배 변연하(35)의 특기인 ‘스텝백 3점슛’이었다.

다. 홍아란은 “시간에 쫓겨서 쓴 슛이 온종기 들어간 것뿐”이라고 겸손해하면서도 “앞으로 이 기술을 더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아란의 맹활약에 KB스타즈 서동철 감독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서 감독은 “(홍)아란이는 수비도 약삭같이 한다. 공격과 수비를 모두 잘 해주고 있다.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흐뭇해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신한은행 카리아 크리스마스(왼쪽)이 26일 구리체육관에서 열린 KDB생명과의 원정경기 도중 한채진의 수비를 피해 골밑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제공 | WKBL

팀 GMP “박태환 도핑검사서 양성반응”

인천AG 전 병원에서 맞은 주사에 금지 성분
“대회 중 수차례 도핑테스트선 문제 없었다”

수영스타 박태환(26·사진)의 소속사인 팀 GMP는 26일 “박태환이 도핑검사 양성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핑적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식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며 함구했다.

팀 GMP는 이날 “박태환이 2014인천아시아인 게임에 참가하기 2개월 전 해외전지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머물 때, 모 병원에서부터 무료로 카이로프랙틱 및 건강관리를 제공받았다. 박태환이 평소 금지약물에 민감해 카이로프랙틱을 마치고 병원에서 주사를 한 대 놓아준다고 할 때, 해당 주사제 내에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수차례 확인했다. 해당 의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사라고 거듭 말했다. 하지



만 당시 박태환에게 투여된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태환과 팀 GMP는 앞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 세계수영연맹(FINA)에 위 사정을 적극 해명해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위 병원을 상대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환은 2008베이징올림픽과 2012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한 세계적 스타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가 도핑스캔들에 연관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체육계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환 측은 “2014인천아시아인 게임 도중 실시된 수차례의 도핑테스트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영희 기자

안병훈·박성준 “차세대 남자 골프스타는 나”

안병훈, 유러피언투어 특급활약으로 주목
박성준, PGA 휴매나 챌린지 공동 2위 돌풍

유러피언투어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2명의 투기가 차세대 한국남자골프의 새로운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안병훈(24)과 박성준(29)이다.

안병훈은 지난해까지 유러피언투어의 2부리그인 챌린지 투어에서 활약했다. 지난해 8월 톨렉스 트로피 우승과 2차례의 준우승을 통해 상금랭킹 3위(15만1107유로)에 올라 올해 1부투어 진출에 성공했다. 시즌 초반이지만 특급 활약으로 팬들의 확실한 눈도장을 받고 있다. 안병훈은 24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골프장에서 막을 내린 커머셜 뱅크 카타르 마스터스에서 공동 5위(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했다. 18일 끝난 HSBC 아부다비 챔피언십 공동 12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상위권이다. 26일 현재 상금랭킹 20위(12만4955유로·약 1억5000만원)다.

안병훈은 한·중 탁구스타 컵인 안재형-자오즈민 부부의 아들이다. 2009년 US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역대 최연소(17세 10개월) 우승을 차지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이후 프로에 데뷔했지만, PGA 투어 진출에 실패한 뒤 유럽으로 눈을 돌렸다. 데뷔 초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해마다 성장하며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2012년 챌린지 투어 상금랭킹 82위에서 2013년 25위, 지난해 3위로 초고속 성장했다.

PGA 투어에선 박성준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퀀타의 PGA 웨스트 골프장에서 끝난 휴매나 챌린지에서 공동 2위(합계 21언더파 267타)에 오르며 깜짝 돌풍



안병훈



박성준

을 일으켰다.

박성준은 대기만성형이다. 주니어 시절 크게 두각을 보이지 못했다. 국가대표나 상비군 경력도 없다. 2006년 프로에 데뷔했고, 이듬해 군복무를 하며 필드를 떠나 있었다. 2009년 투어에 복귀했고, 2011년 일본으로 진출했다. 3년간 일본에서의 생활이 큰 힘이 됐다. 2013년 바나하에서 우승하면서 점차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에는 일본과 미국 웨트컴투어를 병행하는 이중생활을 하면서도 올해 PGA 투어 출전권을 따냈다.

이번 대회 공동 2위는 여러 의미가 있다. 웨트컴투어 파이널 상금랭킹 45위 자격으로 PGA 투어에 올라온 박성준은 초반 성적에 따라 출전 대회가 다시 결정된다. 5개 대회에서 39만 2901달러(약 4억2000만원)를 번 그는 상금랭킹 43위, 페덱스컵 랭킹 41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려 시드 격정을 달게 됐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슈업스키 감독 남자농구 디비전1 최초 1000승
마이크 슈업스키(68) 감독이 지휘하는 미국대학 스포츠협회(NCAA) 남자농구 디비전1의 듀크대가 26일(한국시간)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세인트 존스대와의 경기에서 77-68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슈업스키 감독은 남자농구

디비전1 사상 최초로 1000승을 달성했다. 1975년 미국육군사관학교 사령탑을 거쳐 1980년부터 듀크대 지휘봉을 잡은 슈업스키 감독은 팀을 4차례나 정상에 올려놓았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